

お名前 () さん

특목고 등 명문고 진학을 위해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로 ‘묻지마 진학’을

가는 학생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선발 방식이 크게 바뀌는 만큼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.